

2022년 12월 11일

금문교회 대강절 제3주일/성서주일 The Third Advent/Bible Sunday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have seen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So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요한복음 John 1:1, 14

Dear Father God, this morning we have Advent the third Sunday, and the Bible
Sunday. We all know of Jesus' birth in the prophecies of Old Testament by
prophets like Isaiah and Micah. And we all have confirmation of Jesus' ministry
and his crucifixion and his resurrection and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Jesus,
which was planted in Jerusalem first, and had spread out to the ends of the world.
By the Bible and the Holy Spirit, the Spirit of the Truth, we come to faith
confessing Jesus is our Lord. Now we also believe as the Bible says Jesus Christ
will come again. We the Christians want to wait for His coming. Bless us in the
walk of faith together with our Lord Jesus Christ until the time when we will have
the Second Christmas. In Jesus' name, Amen.

그분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He Shall Deliver Us

미가 Micah 5:1-9

1.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Now muster your troops, O daughter of troops. Siege is laid against us. With a
rod they strike the judge of Israel on the cheek.

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But you, O Bethlehem Ephrathah, who are too little to be among the clans of
Judah, from you shall come forth for me one who is to be ruler in Israel, whose
coming forth is from of old, from ancient days.

3.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Therefore he shall give them up until the time when she who is in labor has given
birth; then the rest of his brothers shall return to the people of Israel.

4. 그가 여호와와 그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And he shall stand and shepherd his flock in the strength of the Lord, in the
majesty of the name of the Lord his God. And they shall dwell secure, for now he
shall be great to the ends of the earth.

5.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앓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And he shall be their peace. When the Assyrians comes into our land and treads in our palaces, then we will raise against him seven shepherds and eight princes of men.

6. 그들이 칼로 앓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앓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They shall shepherd the land of Assyria with the sword, and the land of Nimrod at its entrances; and he shall deliver us from the Assyrian when he comes into our land and treads within into our land.

7.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Then the remnant of Jacob shall be in the midst of many peoples like dew from the Lord, like showers on the grass, which delay not for a man nor wait for the children of man.

8.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 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And the remnant of Jacob shall be among the nations, in the midst of many peoples, like a lion among the beasts of the forest, like a young lion among the folks of sheep, which, when it goes through, treads down and tears in pieces, and there is none to deliver.

9.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Your hand shall be lifted up over your adversaries, and all the enemies shall be cut off.

할렐루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영접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제3주일(Advent the third Sunday)이며, 동시에 성경주일(Bible Sunday)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사야와 함께 주전 8세기에 유다 땅에서 사역했습니다. 이사야와 공통점이 여럿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1.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 마침내 말씀의 능력으로써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2. 그리고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는 메시아께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메시지가 하나로 선포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따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축복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이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대답한 것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 즉 미가 5장입니다. 그중에 2절입니다.

이로써 헤롯과 모든 예루살렘이,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도 성경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과 그 장소, 곧 베들레헴을 알았습니다.

이로써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물론, 그분의 모든 사역은 “성경말씀”에 기록한 모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별과 같은 어떤 자연현상의 결과를 따르지 않습니다. 동양에서는 오래 전부터 점성술이 발달하여, 별의 운행법칙에 따라 인간 세상에 될 일을 미리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I have faith in God that all will be done just as He said.
사도행전 Acts 27:25b

미가의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앓시리아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위협이 되던 주전 8세기가 배경입니다. 미가가 선포한 하나님의 구원은 일차적으로 주전 8세기 이스라엘, 더 구체적으로는 유다 땅에 임할 것입니다. 실제로 앓시리아는 북 이스라엘을 함락했지만, 남 유다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가의 예언 범위는 유다와 예루살렘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사마리아 곧 북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왕과 고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산당을 짓고 우상숭배하며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죄악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실제로 북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 유다도 생존하기는 했지만 고난이 극심했습니다.

미가의 예언은 계속 유효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던 남 유다도 끝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앓시리아 다음에 일어난 강대국입니다.

앓시리아도 바벨론도, 심지어 애굽도,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하시는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거룩한 길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나와 왕과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말씀을 거역하면 죽게 될 것이다.

북 이스라엘이 앓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많은 포로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사랑이 크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시지만,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멸망의 징벌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멸망이 오기 전에 임할 사건을 보이십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유다가 악한 나라 앓시리아로부터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궁극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 모든 세상 끝에 임할 종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앓시리아와 바벨론 같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원수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John 3:16

1.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Now muster your troops, O daughter of troops. Siege is laid against us. With a rod they strike the judge of Israel on the cheek.

이제 유다에 임한 위기에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떼를 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지휘부를 강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But you, O Bethlehem Ephrathah, who are too little to be among the clans of Judah, from you shall come forth for me one who is to be ruler in Israel, whose coming forth is from of old, from ancient days.

바로 여기에서 마태복음 2장에서 인용된 그 유명한 메시아 탄생 예언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위기에 닥친 이스라엘을 다스려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다윗 같은 인간의 혈통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분의 근본은 상고에(old times), 영원에(ancient, eternal)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Therefore he shall give them up until the time when she who is in labor has given birth; then the rest of his brothers shall return to the people of Israel.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가 그분을 낳기까지, 그리고 애굽 피난을 거쳐 나사렛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4.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And he shall stand and shepherd his flock in the strength of the Lord, in the majesty of the name of the Lord his God. And they shall dwell secure, for now he shall be great to the ends of the earth.

메시아의 사역은 여호와의 능력과 그부느이 이름의 위엄에 기초합니다. 그분의 목양, 곧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이 비로소 은혜 안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는 창대하여, 땅 끝까지 퍼져나갈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바, 우상을 친 그 돌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처럼!

5.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앓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And he shall be their peace. When the Assyrians comes into our land and treads in our palaces, then we will raise against him seven shepherds and eight princes of men.

보십시오. 이 사람, 곧 메시아는 평강(shalom)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의 예언에서 “평강의 왕”(Prince of Peace, Shalom)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마침내 앓수르가 쳐들어와 궁궐을 파괴할 때, 하나님께서 목자들과 왕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들은 원수들을 칠 것입니다.

6. 그들이 칼로 앓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앓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They shall shepherd the land of Assyria with the sword, and the land of Nimrod at its entrances; and he shall deliver us from the Assyrian when he comes into our land and treads within into our land.

그들이 앓수르 원수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의 땅과 니므롯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앓수르가 들어와 공격할 때,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서 났습니다.

7.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Then the remnant of Jacob shall be in the midst of many peoples like dew from the Lord, like showers on the grass, which delay not for a man nor wait for the children of man.

야곱 곧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처럼, 그리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움이 되시고, 축복이 되실 것입니다.

8.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 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And the remnant of Jacob shall be among the nations, in the midst of many peoples, like a lion among the beasts of the forest, like a young lion among the folks of sheep, which, when it goes through, treads down and tears in pieces, and

there is none to deliver.

야곱의 남은 자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수풀의 사자나 젊은 사자처럼 밟고 찢어서 원수를 물리칠 것입니다.

9.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Your hand shall be lifted up over your adversaries, and all the enemies shall be cut off.

이스라엘의 손이 대적들 위에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써 원수를 모두 진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 성탄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완성하신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 한 모든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모든 뜻대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 천국에 함께 갑시다. 성령님께서 감화감동 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써 거룩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복된 계절에 하나님 생각에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이 들림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